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347

JCCT 2023-5-40

## 가족치료와 가족코칭의 융합적 접근

### Convergence Approach of Family Therapy and Family Coaching

서우경\*

Suh Woo Kyung\*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인 한 명의 내담자를 두고 상담과 코칭의 융합적 적용에 대한 중요성이 학계와 임상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가족치료와 가족코칭의 융합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치료의 주요 이론 가운데 코칭과 접목하여 임상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코칭 기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치료가 가족코칭과 융합적 적용이 가능한지, 가족치료의 주요 이론들이 임상 현장에서 코칭과 접목하여 활용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중구속과 의사소통 코칭, 가짜 친밀성과 진실한 라포, 부부 균열과 갈등 중재, 분화와 객관적 관조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가족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코칭과의 융합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임상 치료모델과 가족코칭의 학문적 정립을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가족치료, 코칭, 가족코칭, 라포, 객관적 관조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a convergence approach of family therapy and family coaching as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application of counseling and coaching has rapidly spread around the academic and clinical world with one individual client around the world since the 2000s. For this, based on previou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studies, coaching techniques that can increase clinical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by combining with coaching among the main theories of family therapy were presented. This researcher examined whether family therapy can be applied convergently with family coaching, and what benefits are available when the main theories of family therapy are combined with coaching in the clinical field. For this purpose, double binding and communication coaching, pseudo-mutuality and true rapport, marital schism and conflict mediation, differentiation and dissoci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a convergence approach of family therapy and family coaching will be attempted in the field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d through this, i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new clinical treatment model and academic establishment of family coaching.

**Key words** : Family Therapy, Coaching, Family Coaching, Rapport, Dissociation

\*정희원, 연세대학교 학부연계전공 직위 겸임교수(단독 저자)  
접수일: 2023년 3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0일

Received: March 30, 2023 / Revised: April 15, 2023

Accepted: May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swk@yonsei.ac.kr

Dept. of Undergraduate Interdisciplinary Major, Yonsei Univ,  
Korea

## I. 서 론

가족치료와 코칭의 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기존의 이론적 연구의 재해석과 임상적 경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새롭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코칭 역량이 필요하다. 사실 코칭의 이론적 근거들은 상담학과 심리학, 경영학 등 여러 영역의 학문적 발전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치료에서 효과적인 코칭 접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족치료의 핵심 이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치료가 체계이론의 기본 틀에서 구축된 사안과 역사적 이해는 가족치료가 1990년대 이후 가족 관계에서 숨겨진 문제를 이해하고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가족치료는 1950년대부터 심리치료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레고리 베이슨(Gregory Bateson)과 머레이 보웬(Murray Bowen),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 등의 주요 연구들 위에서 발전해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족치료가 발달하도록 촉매제가 된 연구들과 오늘날 코칭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한 상담과 심리치료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는지 깊이있는 이론적 탐색을 통해 살펴보아도 매우 흥미 있을 것이다.

가족치료와 관련된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가족 내에서 문제 증상을 가진 개인을 치료하는 ‘개인치료’와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를 기능적인 가정으로 재구성하는 ‘가족치료’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1]. 물론 개인의 심리치료 혹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맥락에서 가족치료를 바라보거나, 관찰자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가족치료 영역을 다루기도 한다[2].

가족치료는 어떤 특정한 한 경로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정신의학 및 심리학과 같은 근접 영역의 여러 학문과 서로 융합되고 임상적 성장을 거듭해 나가면서 학제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치료는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와 역동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가족치료의 학문적 정립 과정은 최근에 여러 학문 영역과 학제적 접근으로 융합적 관점을 시도하고 있는 ‘코칭(coaching)’의 발전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코칭은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컨설팅, 리더십, 종교학, 스포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정

립되어 가고 있다[3].

2023년 현재, 국회 전자도서관에 소개된 코칭 연구 자료는 6,250개 정도이며 이 가운데 석·박사 학위 논문은 1,063개, 연속간행물과 학술 기사도 3,981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4].

또한 코칭 관련 학회와 협회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외 대학교에 코칭 전공 학위과정과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족 해체와 갈등의 위기속에서 코칭과의 접목을 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성이 있다[5, 6].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국내·외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치료의 핵심 이론들 가운데, 가족치료가 심리치료 영역에서 다루어지도록 주요 토대를 마련해 준 ① 이중구조 ② 가짜 친밀성 ③ 부부 균열 ④ 분화 등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연구들과 코칭을 접목했을 때 새로운 연관성과 통찰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탐색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7-9], [10].

## II. 가족코칭의 개념 및 이해

먼저 가족코칭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칭(coaching)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칭의 어원은 코치(coach)에서 파생되었다. 코치는 1500년대 사람들이 현재있는 곳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마차(馬車)를 의미했다. 마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버스와 택시 등의 운송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코치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1840년대에 영국에서는 가정교사(tutor)를 코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1880년대에 이르러 케임브리지의 템즈 강에서 대학생들에게 노 젓는 것을 지도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불렀다. 이후 코치는 운동선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코치는 각 선수들을 코칭하여 자신감을 증대하고, 명확한 목표를 갖게 하며,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더 위대한 성취를 달성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이렇듯 스포츠 영역에서 사용되던 코칭의 개념이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코칭의 개념으로 넘어오기까지는 1980년대 재무 설계사였던 토마스 레오나드(Tomas Leonard)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는 고객 상담을 하며 신뢰를 주었던 한 여성 고객으로부터 ‘코치(coach)’라고 불려지면서

1992년에 최초의 전문 코칭 교육 기관인 코치유(Coach U)를 설립하였고, 1994년에는 국제적 코치를 양성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국제코치연맹(ICF: Interantional Coach Federation)’을 설립하였다[12].

코칭의 영역은 비즈니스 코칭과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 스포츠 코칭, 크리스천 코칭 등 크게 5개의 분야 별 전문 영역이 생겨나면서 점차 세분화되어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라이프 코칭 영역은 가족코칭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코칭 영역도 부부코칭을 중심으로 부모 코칭, 부모-자녀 관계코칭, 가족중심코칭 등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13-15].

가족코칭의 개념은 일반 코칭의 개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코칭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코칭의 기본 개념은 강력한 코칭 문화의 구성 요소와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 코칭 역량을 모두 포함한 ICF(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 국제코칭연맹에서 제시한 코칭 개념이다. ICF의 코칭 정의는 “전문적인 코칭이란 인생, 경력, 비즈니스와 조직에서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관계를 말하며, 코칭은 코칭을 받는 고객(coachee)이 그들 자신과 직업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영감을 주고, 생각을 일깨우며 창의적인 과정 안에서 고객과 함께 하는 협력 관계이다”라고 하였다[16].

사실 코칭의 정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학문적 관점과 근거에 따라 여러 개념적 정의가 도출될 수 있다. 코칭계에 ICF와 같은 기관에서 내린 정의 이외에 코칭 전문가들이 내린 정의는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개념적 정의는 코칭계에 아버지 불리며 ICF(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 국제코칭연맹과 IA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aching) 국제코칭협회를 창립하고 코칭산업의 초석을 마련한 토마스 레오나드(Thomas J. Leonard)와 비즈니스 코칭을 주도하고 성과향상을 위한 ‘GROW’ 코칭대화모델을 제시한 존 휘트모어(John Whitmore)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이프 코칭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레오나드(Thomas J. Leonard)는 코칭은 고객의 관점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리얼 윈트(real want)’를 발견하고 개인(personal)의 핵심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존 휘트모어는 코칭의 유사 영역에서 코칭 정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을 발표하여 비즈니스 코칭을 중심으로 GROW 모델을 주창하였다. GROW 코칭대화모델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全) 세계 코칭 입문자에게 체계적인 코칭 대화 기법을 습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코칭이 시스템을 갖춘 구조화된 대화법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는 코칭이란 “조직 구성원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7].

토마스 레오나드와 존 휘트모어의 코칭 정의 이외에 일반 코칭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기관마다 다르다. 일본의 마스터 코치 에노모토 히데타케는 “코칭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했으며 마셜 쿡은 “코칭은 스스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참여를 통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게리 콜린스는 “코칭은 한 개인이나 집단을 현재 위치에서 그들이 원하는 보다 능력있고 만족스러운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이다”라고 하였다[18].

코칭의 정의는 기관과 코칭 전문가를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개념적 정의에 포함되는 주요 키워드는 개인과 조직, 변화, 성장, 성과, 잠재력, 자아실현, 대화시스템, 파트너십 등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코칭 정의도 라이프 코칭 영역에서 도출될 수 있는데, 가족코칭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부코칭, 부모코칭, 부모-자녀 관계코칭, 아동코칭, 청소년 코칭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부모 코칭은 부모의 역할을 ‘코치’라고 본다. 코치형 부모는 자녀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경청과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녀 스스로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성장하게 한다.

한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치료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문제해결과 회복에 역점을 두고 상담을 하지만, 가족코칭의 입장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더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둔다. 이와 같은 견해는 게리 콜린스(Gary Collins) 박사가 주장한 상담가와 코치의 역할을 비교한 정의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상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코칭은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상담은 내담자가 과거에 받았던 정서적, 영적 고통을 회복시켜 주도록 돕지만, 코치는 사람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상담가는 내

답자의 정서나 심리적 상태, 전반적인 부분을 돕거나 진단한다. 이와 반대로 코치는 내담자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19].

이와 같은 입장은 토니(Tony)의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코칭은 과거로부터 치유되지 않은 문제들 대신에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초점을 둬으로써 양질의 삶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강력한 도구라고 하였다[20].

패트릭과 드보라(Patrick & Deborah)는 ‘라이프 코치로서의 치료사(Therapist as Life Coach)’라는 저서에서 코칭은 사람의 현재 상태를 다루고 더 바람직한 미래로 인도하지만, 상담과 치료는 사람의 과거와 트라우마(trauma)를 다룬다며 “코치는 코치이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지만, 상담은 치료자가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라이프 코칭은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족코칭도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이해와 잠재력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다 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21].

요컨대, 코칭은 한마디로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체계적인 대화 기법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치료와 코칭의 융합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코칭의 개념 속에는 이미 치료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관점에서 “가족코칭이란, 가족 간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부부와 자녀 관계를 친밀하게 향상시키며 경청과 질문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말한다. 또한 가족코칭은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잠재력이 최대의 결실을 보도록 끊임없이 지지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

### III. 가족치료와 가족코칭의 융합적 적용 가능성

가족치료의 영역처럼 코칭이 학문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보다 체계적인 탐구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코칭 이론 정립을 위한 객관적, 과학적, 임상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이러한 노력의 시작은 게리 콜린스(Gary Collins) 박사의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코치, 특히 라이프 코치가 된 많은 이들이 치료사나 상담가의 경력이 있으므로 치료사는 소통하고 대인 관계를 맺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삶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평가 도구 사용에 능숙하며, 내적 갈등이나 다른 심리적 문제의 징후를 보이는 태도나 행동을 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치료사나 상담사들이 궁극적으로 상담과 코칭의 융합적 적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내담자의 내적 통찰과 역기능 가정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개인과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다.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이론적 틀 안에서만 내담자를 묶어둘 필요가 없고 상담과 코칭의 융합적 적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개인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23].

오늘날 퍼스널 코칭(personal coaching) 분야가 심리코칭, 상담코칭, 치료코칭, 트라우마코칭 등 근접 분야 학문과 접목되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면, 이제는 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 도출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런 시도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도 심리치료나 상담 영역에서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가족 간의 문제나 역기능 가족의 아픔을 더욱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칭 접목이 효과적이며, “코칭이 분명히 치료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24-25].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인 한 명의 내담자를 두고 상담과 코칭의 융합적 적용에 대한 중요성이 임상 사례 연구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26].

따라서 가족치료와 가족코칭도 이런 시각에서 얼마든지 융합적 접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외 코칭계에서는 라이프 코칭 영역에서 ‘가족코칭’이라는 말이 대두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27]. 물론 가족치료에서 코칭 접근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발달 특성에 따라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28-29].

### IV. 가족치료의 주요이론과 코칭의 비교분석

1. 이중구속(double-binding)과 의사소통 코칭(communication coaching)

가족치료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진 초기 연구는

그레고리 베이슨(Gregory Bateson)이 팔로 알토(Palo Alto)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으로, 상반되는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이중구속(double-binding)'에 대한 의사소통 연구이다. 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이중구속 메시지를 전달받은 아동은 자신의 행동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게 된다. 이중구속 메시지에 자주 노출된 아동은 낮은 자존감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유대감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여전히 많은 역기능 가족은 의사소통에서 이중구속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듯 부부 혹은 부모-자녀 대화에서 서로 모순되는 소통 불일치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코칭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코칭 모델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30-32]. 특히 코칭 대화의 특성은 간결하고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중구속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탁월하다. 경청과 질문을 위주로 진행되는 코칭 프로세스는 코칭 받는 대상자에게 혼란을 주는 이중 질문은 철저히 배제한다. 코칭 프로세스 자체가 시스템을 갖춘 코칭대화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코칭식 대화법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중구속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코칭식 의사소통 대화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런과 올슨(Barnes & Olson)은 "가족에게 의사소통은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나누며 가족 역할이나 규칙을 규정하는 최선의 도구이며 의사소통이 좋은 가족일수록 가족 응집력과, 가족 만족도, 가족 적응력이 높다"라고 주장하였다[33]. 여기서 가족 의사소통이란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말, 행동, 태도 등을 통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다른 가족원에게 영향을 주며, 하나의 상징적인 상호교육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창출해 내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34], 이 과정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코칭식 대화 특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원활하지 못할수록, 그리고 역기능적일수록 아동에게 외로움, 분노, 자살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한다[35]. 만약 상반된 메시지, 즉 이중

구조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대화를 자녀에게 계속 하고 있다면 자녀는 이중구속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코칭 대화법을 부모가 익힐 필요가 있다. 코칭 대화법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8대 2의 대화법'으로 경청이 8할과 질문이 2할, 공감과 인정, 메시징(messaging)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가족 치료와 코칭의 융합적 접근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바로 '코칭형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코칭형 부모는 자녀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수용 가능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며 정해진 규칙은 잘 지켜지도록 '역할 모델(role model)'이 되어주는 부모이다. 사실 코칭형 부모 역할에 기초를 제공한 사람은 다름아닌 바로 그레고리 베이슨(Gregory Bateson)이다. 그는 의사소통 이론을 보급시키면서 심리학적 이론을 모델링(modeling)하여 NLP(Neuro Linguistic Programming)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심리치료와 상담, 코칭의 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론적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도 의사소통전문가이자 '가족 치료의 어머니'로 간주될 정도로 가족치료의 선구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NLP(Neuro Linguistics Programming)에서 치료 연구를 통하여 변화과정 모델을 개발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NLP는 신경(Neuro)과 언어(Linguistic), 프로그래밍(Programming)의 약자를 지칭하는 말로 "인간의 행동은 신경과 언어의 상호작용으로 프로그램화되는 작동과정을 탐구하는 기법"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NLP 코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반드시 신경 체계와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중구속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36].

## 2. 가짜 친밀성(pseudo-mutuality)과 진실한 라포(true rapport)

가족치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또 다른 연구는, 리만 와인(Lyman Wynne)의 '가짜 친밀성(pseudo mut-

uality)’에 대한 연구이다. 이 가짜 친밀성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구조에 의해서 겉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가족내의 갈등이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가족처럼 보이며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체성과 감정은 무시되고 의견 불일치를 보인다.

가짜 친밀성 이론은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못하며 가족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든다. 가족 구성원들은 상황 변화에도 언제나 동일한 역할 구조를 가지며 상호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37].

그렇다면, 가짜 친밀성과는 반대로 가족 구성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신뢰관계 즉, ‘라포(rapport)’라고 할 수 있다. 라포는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의 의사 메즈머(Mesmer)가 내담자와의 공감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고, 그 후 프로이트도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라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소통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38]. 라포는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결속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라포(rapport)에 대해 요셉 유미디(Joseph Umidi) 박사는 라포(R.A.P.P.O.R.T.)의 약어는 “사실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반영해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Really All People Prefer Others Reflecting Themselves)”라고 강조했다[39].

가족 구성원들이 가짜 친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코칭적 접근은 진실한 ‘라포’ 형성이다[40]. 가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간의 결속과 유대 관계를 맺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며 가족간의 오해나 상처를 라포를 통해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진실한 라포(true rapport)가 형성되면 깊은 신뢰감이 생겨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속 마음을 나누게 되며 결속력이 생긴다. 이를 위해 라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요구된다고 보는데, 해외 학자들의 ‘라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상호간의 이해와 긍정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41].

표 1. 해외 학자들의 라포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rapport by foreign scholars

학 자	정 의
· Bernieri(1988)	조화롭고 부드러운 <b>관계</b>
· Carey, Stanley & Biggers(1988)	상호간 <b>이해관계</b> , 만족스러운 <b>의사소통</b>
· Carey, Hamilton & Shanklin(1985)	상호간의 <b>이해</b> , <b>의사소통</b> 만족
· Dell(1991)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b>긍정적 감정</b> 으로 마음이 통하고 편안한 느낌
· Herrigna, Rosenthal (1983)	마음이 통하고 서로 <b>관심</b> 및 따뜻한 <b>관계</b>
· Krizer(1990)	좋은 <b>관계</b>
· La bahn(1996)	<b>관계</b> 에 대한 공감대의 인지
· Nadler(2012)	조화와 친밀감을 통해 서로에게 가지는 <b>긍정적 감정</b> 상태
· Norfolk(2009)	마음이 통하고 편안한 <b>관계</b>
· Tickle, Degnen & Rosenthal(1990)	<b>상호주의성</b> , 긍정성, 공동작용
· Weitz, Castleberry & Tanner(1992)	상호신뢰 속에서 형성된 밀접하고 조화로운 <b>관계</b>

이상에서 라포의 의미를 종합하면, “라포는 신뢰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긍정적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만 와인(Lyman Wynne)의 ‘가짜 친밀성(pseudo-mutuality)’을 극복하고 부모-자녀 사이의 진실한 의사소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진실한 라포 형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부모-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물론 부모-자녀 사이에 언어적 및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서로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 또한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에 힘써야 될 것이다[42].

### 3. 부부 균열(marital schism)과 갈등 중재(conflict mediation)

가족치료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는 테오도르 리츠(Theodor Litz)의 ‘부부 균열(marital

schism)’에 대한 연구이다. 부부 균열은 부부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심각성을 부인하며 부부간의 대화 영역에서 매번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부부 균열의 경우에는 부부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적이고 의견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들은 쉽사리 부부 갈등에서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화해하고 빨리 가족이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부부 관계는 자녀의 역할 중재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부부 갈등의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격, 사고방식, 생활습관, 의사소통, 성생활, 외도, 종교, 무관심, 경제, 자녀훈육 방식, 애정, 시댁과의 문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43].

콜린스(Collins)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과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잘못된 의사소통, 둘째,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태도, 셋째, 서로 간의 긴장 상태를 일으키는 성(性), 역할, 신앙, 가치관, 욕구, 금전 등의 요소들, 넷째, 부부 관계 외의 외부에서 오는 압력, 다섯째, 결혼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오는 권태감 등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44].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5월에 발표한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를 보면,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23.2%, 경제적 문제 22.6%, 배우자의 생활습관 20.2%, 내부모·형제자매와 관련한 문제 9.8%, 자녀교육 문제 9.6%의 순이었다. 2015년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18.7%가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2020년 보다 8.4%p 높았다.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행동유형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 42.4%, ‘그냥 참는다’ 29.0%,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 18.5%,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 5.7%로 나타났는데, 젊은 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45].”

부부 갈등에 대한 원인 분석을 조사하고 통계적 수치를 조사한 것은 여러 영역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부 갈등의 원인을 찾아 무조건 갈등을 급하게 해소하는 방안보다는 갈등을 잘 조절하여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코칭적 접근이 보다 더 유용하다고 본다.

코칭에서 갈등 중재는 라이프 코칭과 비즈니스 코칭 영역에서 모두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 코칭에서 다룬다. 이를 위해 부부의 성장 배경, 의사소통 방식, 배우자에 대한 욕구 탐색 즉, 리얼 원트(real want)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원트(want)에 초점을 두고 코칭을 진행한다. 이때 코치(coach)는 코칭받는 코치이(coachee)에게 경청과 질문, 인정과 공감에 대한 기술들을 다루며 배우자에게 자신이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 직면하기 기법을 통해 자기 성찰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코칭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부부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4. 분화(differentiation)와 객관적 관조(dissociation)

가족치료에서 머레이 보웬(Murray Bowen)의 ‘분화(differentiation)’에 대한 연구는 오랜시간을 걸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보웬은 자아 분화를 개인의 정신 내적 차원과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정신내적 측면에서 자아분화는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분화는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 자아가 발달하게 되므로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46-47].

분화의 개념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분리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부부가 자녀를 낳고 가족을 구성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아동의 자아는 가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영·유아기를 지나 아동의 자아가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가족으로부터 분화되어 독립적인 존재로 서게될 때 비로소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사고와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고, 미분화된 자아덩어리의 형성으로 역기능적 가족의 증상을 보이지만,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이를 균형있게 이루어 독립심과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웬은 역기능적 가정의 구성원들을 ‘미

분화된 가족 자아 집합체(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가족내에서 정서적 단절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가 자라면서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고 분화가 잘 이루어질 때 부모는 자녀의 개별성을 수용하게 되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된다.

보웬의 분화 이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코칭 접근은 분화 수준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가족 체계안에서 분화 수준이 낮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을 끌어들이 불안한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객관적 사고 형성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 방법중에 하나가 코칭에서 사용되는 ‘객관적 관조(dissociation)’ 기술이다. 분화 자체의 개념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객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코칭의 객관적 관조 기술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객관적 관조의 목적 자체는 문제를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분리시켜 객관자 혹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객관적 관조는 보웬의 건강한 분화를 잘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객관적 관조의 상태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어떤 양상으로부터 전혀 관계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문제의 상황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주관적 경험을 철저히 배제하고 제3의 시각에서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만약 가족 체계안에서 객관적 관조를 다루려면, 부모중 한명이 코치 역할을 하고 아동은 코칭받는 피코치의 역할을 하여 2인 1조로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

객관적 관조의 활동 순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8].

- ①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Coach: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세요 (※ 아동을 코칭할 경우,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춰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서 진행하기).
- ②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분리 능력을 연습한다.  
Coach: 최근이나 그 이전이라도 기분 나빴던 경험 하나를 떠올려 보고 그 장면을 액자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③ 액자 속의 화면 만들기를 해본다.  
Coach: 액자 속의 장면을 영화 화면 처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④ 장면의 크기를 확대 화면에서 흑백으로 만든 다음 축소 화면으로 바꾸도록 한다.

Coach: 액자 속의 확대 장면을 흑백으로 만든 다음 축소 장면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 ⑤ 지각하는 것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 짓도록 즉각적으로 객관화 시킬수 있도록 훈련한다.

Coach: 앞으로 기분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도록 객관적 관조를 실시합니다.

요컨대, 보웬의 분화 이론에서는 정상적인 가족의 의미가 가족 구성원들이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위의 객관적 관조 기술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분화를 돕는 코칭 기술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웬의 사고와 감정,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 개별성과 집합성 등 보웬의 개인간의 차이를 반응과 융합의 정도에서 다루고자 할 때, 이제는 가족치료 영역에서 얼마든지 코칭을 접목하여 응용과학(applied science) 및 융합학문(convergence studies)으로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V. 논의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국내·외 가족치료와 코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다학문적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임상 현장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심리치료와 상담 관련 임상 현장에서 치료적 차원에서 통합적 기술을 사용하여 융합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한 사례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선택이론의 창시자 윌리엄 글라써 (William Glasser)가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치료방법에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상담기법인 현실 치료(Reality Therapy)를 만든 것도 좋은 선례이다[49]. 사실 윌리엄 글라써의 현실 치료의 WDEP(Want, Doing, Evaluation, Plan)의 4단계 체계적 질문은 시스템을 갖춘 구조화된 대화모델을 사용하

는 코칭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그린버그(Greenberg)의 “정서중심치료를 기반으로 ICF의 코칭 핵심역량과 함께 융합하여 정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서중심리코칭을 개발하는 것”도 학제간 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도와 이론적 토대면에서 매우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5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치료의 주요이론과 가족코칭을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이중구속과 의사소통 코칭이다. 가족치료에서는 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이중구속 메시지를 전달받은 아동은 혼란과 불안,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갖게되며 많은 역기능 가족은 의사소통에서 이중구속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았다. 의사소통의 순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코칭으로 자녀에게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코칭 대화법 즉, 경청과 질문의 8:2 대화법, 공감과 인정, 메시징(messaging)을 본문에서 제시해 보았다.

둘째, 가짜 친밀성과 진실한 라포이다. 가족치료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짜 친밀성을 보완 수 있는 코칭적 접근은 진실한 라포 형성이다. 가족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가족간의 결속과 유대 관계를 맺도록 라포가 형성되도록 코칭의 라포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부 균열과 갈등 중재이다. 코칭에서 갈등 중재는 라이프 코칭과 비즈니스 코칭 영역에서 모두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코칭에서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 코칭에서 다룬다. 가족치료에서는 부부 균열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만, 가족코칭에서는 부부의 리얼 윈트(real want)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분화와 객관적 관조이다. 가족 체계안에서 분화 수준이 낮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을 끌어들여 불안한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객관적 사고 형성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중에 하나로 코칭에서 사용되는 ‘객관적 관조(dissociation)’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활동 순서를 제시해 보았다. 분화 자체의 개념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객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코칭의 객관적 관조 기술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객관적 관조의 목적 자체가 본인의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웬의 분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유용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치료의 주요 네 가지(이중구속, 가짜 친밀성, 부부균열, 분화) 이론의 약점을 보완하는 코칭적 접근이 내담자의 성장을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상담·코칭 전문가에 의한 합의된 도출이 아니라 연구자의 오랜 임상 경험에서 나온 주관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향후 더욱 합리적인 근거와 전문가 타당도가 검증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치료와 가족코칭의 융합적 접근을 논할 때 이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적합도를 토대로 치료와 코칭의 융합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코칭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확보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코칭기술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치료는 역사도 깊고 선행연구도 너무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반면에, 가족코칭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 근거 확보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코칭에 대한 정의는 계속 늘고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명료하게 가족코칭을 정의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주제별, 영역별 코칭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 코칭에 대한 정의 이외에 더 많은 가족코칭에 대한 개념이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과 결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가족치료와 가족코칭의 융합적 접근이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제시한 가족치료와 가족코칭의 네 가지 융합적 접근의 시도는 ① 이중구속(double-binding)과 의사소통 코칭(communication coaching) ② 가짜 친밀성(pseudo-mutuality)과 진실한 라포(true rapport) ③ 부부균열(marital-schism)과 갈등 중재(conflict medi-

ation) ④ 분화(differentiation)와 객관적 관조(dissociation)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가족치료와 가족코칭의 융합적 접근의 시도가 추후 후속 연구의 방향성 제시는 물론 임상에서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J. A. Song and K. R. Choi, *Theories and Techniques of Family Therapy*, Seoul: Howu Publication, pp. 5, 2002.
- [2] Y. S. Kim,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3rd Edition), Seoul: hakjisa, 2014.
- [3] E. H. Park and J. K. Tak, "A Study on Effects of Convergence Coaching Program for Improving Communication Competency on Civil Servant Team Leader's Coaching Leadership, Self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Vol. 39, No.1, pp. 131-149, January 2021.
- [4]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List.do>
- [5] W. K. Suh,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ristian Coaching and Counseling, and on the Effect of Integrative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 18, No.1, pp. 33-60, November 2009.
- [6] E. M. Jung,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Coaching,"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Vol. 2, No.1, pp. 23-43, June 2009.
- [7] Y. T. Kim, *Family Therapy Theory*, Seoul: hakjisa, pp. 23-25, 2001.
- [8] M. Visser, "Gregory Bateson on ON Deutero Learning and Double Bind: A Brief Conceptual History," *Journal of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Vol. 39, No.3, pp. 269 - 278, June 2003. DOI:10.1002/jhbs.10112
- [9] P. P. Ora, "Bowen Theory: A Study of Differentiation of Self, Social Anxiety, and Physiological Symptom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Vol. 24, pp. 355 - 369, June 2002.
- [10] S. L. Sayers and D. H. Baucom, "Multidimensional Scaling of Spouses' Attributions for Marital Conflic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9, pp. 667 - 693, December 1995.
- [11] S. H. Lee, Y. H. Gil, M. H. Do, and H. Y. Kim, *Introduction to Coaching*, Seoul: Shin-Jeong, pp. 26-29, 2014.
- [12] W. K. Suh,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ristian Coaching and Counseling, and on the Effect of Integrative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 18, No.1, pp. 33-60, November 2009.
- [13] K. J. Kang, "A Study on Parent Coaching Experiences for Strengthening Parent Skills of Multicultural," *Family Women*, Vol. 14, No. 3, pp. 111-125, September 2009.
- [14] Y. S. Kim, K. M. Kim, M. Y. Chang, and S. Y. Hong, "The Effect of Family-Centered Coaching Based on Sensory Integration on the Performance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Vol. 19, No. 2, pp. 12-25, December 2021.
- [15] M. H. Jung, "The Leadership Coaching for Support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Vol. 2, No. 2, pp. 69-82, December 2009.
- [16] <https://coachingfederation.org>
- [17] W. John, *Coaching for Performance: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Coaching and Leadership*, 5th Edition, Y. S. Kim, Paju: Gimmyoungsa, 2019.
- [18] H. C. Choe, H. Y. Cho, M. J. Kim, J. Y. Lee, Y. J. Jang, and W. K. Suh, "The Development of the Retirement Coaching Model(RE-TIRE) for Effective Retirement Plan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2, pp. 459-470, November 2015. DOI:10.5392/JKCA.2015.15.12.459
- [19] G. Collins, *Coaching Bible*, H. J. Yang, K. C. Lee, Seoul: IVP, pp. 25-30, 2011.
- [20] T. Stoltzfus, *Leadership Coaching: The Disciplines, Skills and Heart of a Christian Coach*, Virginia: Coach22, pp. 15-21, 2005.
- [21] W. Patrick and D. C. Deborah, *Therapist as Life Coach*, NY: W. W. Norton & Company, Inc. pp. 12-13, 2007.
- [22] G. Collins, *Coaching Bible*, H. J. Yang and K. C. Lee, Seoul: IVP, pp. 314-318, 2011.
- [23] C. H. Jung and W. K. Suh, "Perception of the Christian Professor's Calling and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Coaching: Focusing on Qsorting Interview Data," *faith & scholarship*, Vol. 27, No. 3, pp. 5-30, September 2023. DOI: 10.30806/fs.27.3.202209.5
- [24] F. Graham, S. Rodger, and J. Ziviani, "Enabling Occupational Performance of Children Through

- Coaching Parents: Three Case Reports,”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Vol. 30, No. 1, pp. 4-15, February 2010. DOI: 10.3109/01942630903337536
- [25]J. V. Smith, Coaching and Trauma, M. J. Lee and S. M. Lee, Coaching and Trauma, Seoul: Korea Coaching Supervision Academy, pp.17, 2022.
- [26]C. H. Jung and W. K. Suh, “Perception of the Christian Professor’s Calling and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Coaching: Focusing on Qsorting Interview Data,” *faith & scholarship*, Vol. 27, No. 3, pp. 5-30, September 2023. DOI: 10.30806/fs.27.3.202209.5
- [27]Y. S. Kim, K. M. Kim, M. Y. Chang, and S. Y. Hong, “The Effect of Family-Centered Coaching Based on Sensory Integration on the Performance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Vol. 19, No. 2, pp. 12-25, December 2021.
- [28]S. H. Lee and W. K. Suh, “An Exploratory Stud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aching Approaches in Parent Education,” *Parent Education Research*, Vol. 5, No. 1, pp. 5-21, January 2008.
- [29]S. H. Lee and W. K. Suh, “SOUL Coaching Model for Spiritual Maturity a Composition of the Program,”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Vol. 15, No. 2, pp. 29-64, July 2022.
- [30]S. J. Song, Y. J. Kim, and E. K. Jeong, “The Effect of Coaching Education Program for Developing Communication Abilities of Parents and Children in the Alienated Clas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57, No. 1, pp. 235-263, June 2018.
- [31]S. Y. Kim and S. H. Kim, “A Study on Perceptual Discrepancy of Emotional Coaching between Mother and Child and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0, No. 2, pp. 1-17, May 2016.
- [32]W. K. Suh, “Coaching Leadership that Strengthens the Positive Function of Communication,” *Korea HRD Association*, Vol. 281, pp. 106-107, January 2014.
- [33]H. L. Barnes and D. H. Olson,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Family Development and the Child*, Vol. 56, No. 2, pp. 438-447, April 1985. DOI: 10.2307/1129732
- [34]K. M. Galvin, Communication and Family Relationships, J. Y. Lee and Y. H. Choi, Communication and Family Relationships, Seoul: Hyungseoul Publishing House, 1990.
- [35]Choi, I. W., A Study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Child through the Making a Havruta Table-Focusing on the Secondary Department of Juan Presbyterian Church, Ph.D. The Graduate School of Ministry Pre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2020.
- [36]W. K. Suh, NLP coaching.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pp. 3, 2008.
- [37]L. C. Wynne, I. M. Ryckoff, J. Day, and S. I. Hirsch,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cs,” *Psychiatry*, Vol. 21, pp. 205-220, November 2016. DOI: 10.1080/00332747.1958.11023128
- [38]J. H. Park and K. M. Oh, “A Study on Covert Non-Verbal Communication in Counseling: Focused on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 10, No. 2, pp. 1-28, October 2018.
- [39]J. Umidi and L. Wallnau, Transformational Coaching, Goyang-city: NCD, pp. 131. 2005.
- [40]D. W. LaBahn, “Advertiser Perceptions of Fair Compensation, Confidentiality, and Rapport,”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36, pp. 28-38, March 1996.
- [41]Park, O. Y., Development and Effect of A Program to Promote the Formation of Rapport Among Parents and Children During Childhood, Ph.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2021.
- [42]J. Y. Kim, Y. E. Jang, and G. A. Min,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7, pp. 209-234, July 2011.
- [43]Lee, H. Y., A Study on Advancement of Member Care Programme to Solve Marital Conflict of Korean Missionaries, Ph.D. Baekse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Seoul, Korea., 2021.
- [44]Kim, M. A.,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Marital Conflict Based on Wife’s Object Relations, Ph.D. Baekse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Seoul, Korea., 2011.
- [45]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amily Fact-Finding Survey Analysis Research, 2021.
- [46]H. S. Shin, “Bowen Family Therapy Theories

- and Application to Korean Family,” *Dongduk journal of life science studies*, Vol. 7, pp. 193-201, 2002.
- [47]S. H. Lee,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owen’s Theory in Korea: Focusing on the Concept of Self-Differentiation,” *Korea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 Vol. 6, No. 2, pp. 151-176, January 1998.
- [48]W. K. Suh, NLP coaching.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pp. 66-67, 2008.
- [49]H. S. Kim and H. J. Kim, “Integration of Pastoral Counseling and Reality Therapy for Middle-Aged Christia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 479 - 486, November 2022. DOI: 10.17703/JCCT.2022.8.6.479
- [50]H. J. Kim, H. S. Jeong, E. H. Na, and J. Y. Shin,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Emotion Focused Psychology Coaching,”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3, pp. 203-212. May 2022. DOI:10.17703/JCCT.2022.8.3.203